

“수해로 하우스 생활하는데 태풍 온다니 겁나요”

나주 다시면·광산구 임곡동 이재민들 걱정 한숨
집중호우 피해 한달 되지만 생활터전 복구 못해
상당수 무허가 건물서 생활...보상 받을 길 없어 막막

광주·전남 이재민들 마음이 급해졌다. 흉탄물로 범벅이 된 집을 고치기도 전에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흉탄물이 들어찬 집장판, 보일러 등을 바꾸기는 커녕, 집안 가재도구도 제대로 못 씻었는데, 앞선 데 닳진 격으로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는 소식에 또 피해를 입는 건 아닌 지 조마조마하다. 이재민들은 복구도 안된 집을 떠나 가뜰이나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발만 동동 굴렀고 있다.

◇“태풍·비 온다”는 말만 들어도 겁나
=유재창씨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집 옆 비닐하우스에 그릇과 옷, 밥솥 등 살림살이를 옮겨놓고 평상에 모기장을 깔고 생활한 지 벌써 3주째다.

집중호우 때 집을 대천 흉탄물로 장판과 가재도구는 엉망이 됐지만,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복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없는 살림에 3000만원을 마련해 집을 수리중이지만 강풍을 동반한 태풍 소식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조차 피해를 입을 지 노심초사다. 아예 태풍이 지나간 뒤 집 수리에 나설 지도 고민중이다.

유씨는 “실 데가 없어 길 위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복구작업 중인데, 또 피해를 입

으면 정말 암담하다”고 말했다. 정점례(74) 할머니는 이번 집중호우로 45년째 살던 집이 무너졌다. 복구 불가능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갈 데가 없어 나주시 다시면 다시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텐트에서 생활한 지도 3주가 지났다. 집중호우 때 몸만 빠져나왔고 가재도구는 모두 쓸려갔다. 지금 거주하는 텐트도 이달 말 이후에는 나주시가 철거할 예정이라 제대로라면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와야 한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은 정 할머니를 더 답답하게 했다.

정 할머니는 “지난해 숨진 남편 제사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첫 제사조차 지낼 수 없게 됐다”며 울음을 쏟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의 얼굴 표정도 어두웠다. 동네 주민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탓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들 이재민들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게 버겁기만 하다. 당장, 인근 숙박업소 도움을 받아 이달까지는 임시로 머물 수 있게 됐지만 다음달이면 옮겨야 하는 처지다. 주민 정주화(50)씨는 “집이 잡길 때 반바지 3개, 옷 3개, 겨울바지 17개만 건져 나왔다”며 “가진 돈도 없는데 어디서



24일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비닐하우스에서 수해 이재민이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암담하다”고 울먹였다.

◇태풍에도 집에 못가는 이재민만 280명=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12개 시·군 이재민은 5101명으로, 이들 중 여태껏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도 280명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구례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담양(43명)·나주(21명)·장성(12명)·함평(9명)·곡성(8명)·화순(6명)·광산구 임곡(6명)·순천(4명) 등이다. 이들은 머물 데가 없어 마을회관·텐트·초등학교 등에서 무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재민들 대부분은 집중호우로 물에 잠

긴 집을 복구하기도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도 언제 또 물이 들이칠까 걱정된다”면서 “강수량이야 어찌됐든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아속하다”고 말했다. /나주=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법무부, 27일 검찰 인사

법무부가 오는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 발표일은 오는 27일이며,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이다.

법무부는 차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9~30기는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도 총원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며,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선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취업사기 또 터졌다

경찰, 취업 명목 금품 2명 조사...SNS에 피해자 300명 넘어 파문

기아차 취업 사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기아차 채용을 미끼로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SNS에 개설한 대화방 참여자들만 300명이 넘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년 전 “누군가에 의해 입사할 수 있다는 자

체가 사기이고 버리”라고 밝혔음에도, 기아차 채용비리가 잇을만하면 터져나오 있다는 점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수사대는 이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쟁건 혐의(사기)로 A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수십명의 구직자들에게 기아차 공장에 취업을 앞선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이 기아차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시킨 뒤 기아차 광주공장 정규직으로 특별채용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SNS상에 지난 23일 ‘기아 취업사기 실명 인증 피해자 비밀방’이 개설된 데 주목하고 있다. SNS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회원들만 321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규모, 범행 과정 등을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국방부 5·18조사위원 출석 헬기사격 증언

광주지법, 전두환씨 16차 공판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의혹 증언

전두환(89)씨 재판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이 출석,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20회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증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뒤 5개월 간 조사를 진행,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

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이 모두 헬기 사격을 부인해 부대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군 기록,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전일빌딩(5월27일)을 비롯, 송암동, 광주전, 조산대 절개지(뒷산) 등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광주 출동 부대에 ‘방송 종료 즉시 벌건 위협 사격’ 등이 담긴 경고문이 하달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울지검에서 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역사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텔런트 겸 배우가 방송 출연 사기

수강생 부모에 수천만원 가로채

텔런트 겸 배우 A씨가 연기학원 수강생의 방송 출연 등을 제안하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

각 항소해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운영

하는 광주지역 연기자 육성학원에서 학원 수강생 어머니에게 자녀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해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 3억원을 돌려받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정작 3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국예술종합원이나 방송출연 등을 제안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2년 넘도록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A씨는 광주 출신 배우로, 사극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